특 집 공안탄압속에서 문민정부실세를 진단한다

문민정부의 안정지 신공안정국

여전히 공안정국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을 인정해서는 안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다. 지난 호에 이어 현 정세에 대한 다른 시각의 평가를 싣는다.

〈편집자註〉

가히 점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부더웠던 이번 여름, 더위만큼이나 뜨거운 열기로 온 한반도를 뒤덮었던 것이 문민정권 하에서의 공안정국이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김일성 주석의 급작스런 사망과 함께 느닷없이 불어닥친 공안정국의 여파는 그동안 무르익었던 남북 화해와 동일본위기를 일거에 반전시키고 남북 관계를 다시금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

석달동안 한국사회를 온통 주사파 소동으로 몰아넣으며 광란에 가깝게 사회적인 집단히스테리 증세를 보이게 했던 공안정국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국가권력이 사회의 어느 집단에 대하여 제대로 검증되지도, 사회적으로 설정한 어떤 객관적인 기준도 없는 사상시비로 한마디 항변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재판에 회부한 다음 무자비하게 유죄이는 식의 이번 공안정국은 흡사 50년대 미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매카시 선풍을 떠올리게 한다.

여하튼 이제는 이성을 찾고 냉철히 되돌아 보아야 한다. 무엇이 사회를 어토록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제는 객관적인 눈으로 성찰하고 해결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공안정국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보는 사람마다 여러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 개혁정국 하에서 승죽여가며 살아왔던 극우 보수세력이 있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들은 표적수사, 사정수준에서 개혁작업이 마무리 된 점, UR국회비준 동의안을 국민적 합의없이 통과시키려 한 점, 한완상, 이회창등 개혁적 인사들에 대한 숙청과 측근중심의 요직배치를 이루어낸 점,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들의 요구는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기득권 세력들을 비호하며 탄압에 나선 점,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남의 나라 입장만 쫓아가며 외교적 망신만 당한채 오락가락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개혁의 실패와 국민적 지지도의 하락은 자신의 조직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의 김영삼 정권에게 위기감으로 작용하였다. 더군다나 집권 후반기를 앞두고 지자체, 총선까지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김정권으로서도 자신의 정권의 앞날을 내다보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이런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하여 김영삼 정권이 택한 것은 남북정상회담 수락과 공안탄압이라는 것이었다. 한편에서는 정권유지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인 민족민주 운동세력을 초토화시켜 정권안정화의 초석을 마련하고, 한편에서는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만났다는데에서 통일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여 국민적 지지도를 만회해 보려는 것이 김영삼 정권의 계산이었다.

김영삼 정권의 이러한 계산에 못지않게 극우 보수세력들도 공안정국을 조성하는데 사활적으로 뛰어들었다. 이유야 어쩌되었던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이후의 통일정세가 계속된다면 남북대결과 반공반북을 생존이념으로 살고 살아왔던 자신들이 더이상 설자리가 없어지게 됨은 뻔한 사실이었기에 그들로서는 어떻게든 기회를 노려 혜빙을 맞이하는 남북관계를 다시금 얼어붙게 하고, 사회적인 반공분위기와 더불어 민족민주 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자신들의 살길을 찾으려 하였던 것이다.

공안탄압이 청와대의 통제를 벗어나 온사회를 집단 히스테리 증세로까지 몰고간데에는 극우 보수세력들의 이런 꼴사의 의지(?)가 큰 몫을 한데 있었다.

7,8월 두달동안 온통 신문지면과 라디오, TV 등 언론매체를 화려하게 장식했었던 주사파 척결소동, 이성과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어찌보면 그리 대단치도 않은 조문 문제를 놀리싸고 주사파 소동이 고개를 쳐들더니 연이어 터진 서강대 박홍 총장의 주사파 발언과 이에 구세주라도 만난듯 검찰, 경찰, 안기부를 공안 기관의 경쟁적인 검거선풍은 극우 언론들의 튼튼한 보호(?)를 받으며 광기에 가깝게 진행되었다.

무려 두달동안 구속된 사람이 3백 50여명에 가깝고 그 대부분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국가보안법으로 말하자면 이미 위헌사항이 판별되고 가을 정기국회에서 개폐될 수밖에 없으며 남북 화해와는 병존할 수 없는 처지인데도 썩어도 준치라고 했던가 그 위력은 참으로 대단했다. 자유민주주의를 높이 외치는 정권 당국자들은 사실은 반 자유민주주의적인 행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다.

현재 한국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어떤 정보도 판단 기준도 제대로 서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있냐해도 몇 안되는 사람들이 밀고있을 터인데 자나깨나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해 소리높여 외치는 사람들이 한 허풍장이의 말만 믿고 온사회가 금방이라도 무너질듯이 야단 법석을 떨면서 주사파 척결소동을 벌인 것은 무엇인가 큰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이란 것을 신빙성있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즉, 주사파 소동을 일으킴으로써 이북과의 대화를 원천봉쇄하고 남북대결구도를 복구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국내 극우보수세력들의 외지가 크게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국 김영삼 정권도 정권 안정화란 미명하에 이의 포로가 되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주사파 소동과 반북이데올로기의 무차별적인 유포는 결국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고립을 낳았으며 남북대화에 찬물을 끼얹고 국민적인 반김의식을 더욱 증폭시키게 되었다.

현재 구속된 사람은 3백 50여명에 이르고 있고 연행되었다가 풀려난 사람까지 합친다면 천여명이 웃돌고 있으며 내사받고 수배받는 사람까지 합친다면 몇천명이 되는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달새 조직사건만 해도 여러개가 터졌으며 이는 대부분 당사자들로부터 고문에 의한 조작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범위는 대학 학생운동권을 떠나 노동자, 농민, 사회계, 정계 등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진행중이다.

그렇다면 군부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이런 무모한 탄압을 통해 김영삼 정권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김영삼 정권의 앞길에는 장차 우리나라 정치지형 자체가 바뀌게될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가 놓여있고 이를 앞두고 가장 첨예사안이 될 UR국회비준 문제가 놓여있다. 뿐만아니라 국가보안법등 악법개폐논의가 닐아오을 전망이며 남북 정상회담 또한 언젠가는 건너야할 다리로서 필연적으로 놓여져 있다. 여기서 자신이 주도권을 틀어버린다면 정권유지 자체가 흔들릴 수 밖에 없기에 자신이 보기에 눈에 가시처럼 여겨온 민족민주운동 세력에 대해 초토화 작전을 쓰고자 하는 것이다. 즉 아무런 반대없이 자신의 뜻대로 정치일정을 밀고나가려 하는 것이다.

학생운동에 대해서는 탄압의 강도를 더욱 조이며 한총련을 미봉한 학생회 조직을 와해시키려 할 것이다. 박홍장 발언이후 각대학에서 면학분위기 조성을 빌미로 학생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해오고 있으며 특히나 유가을 학생회 선거 속에서 기존의 학생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학생과 학생간의 분열공작을 더욱 노골화 하리라고 보여진다.

세상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지존파 강도 살인사건'과 '인천 북구청 세금착복 사건'은 김영삼 정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교훈적인 사건이다.

그동안 주사파 척결, 불법파업 조기차단, 극렬시위 초기진압 등을 명분으로 경찰병력을 온통 여기에 쏟아붓고 인명살상의 위험때문에 폐기된 고무탄환종까지 휴대하며 시위진압 특수부대를 창설한다 하고 있을 때 전국에서는 또다시 조직폭력배가 창궐하고 '지존파'같은 천인공노할 살인강도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던 것이다. 정부가 경찰인정화를 위해 경찰력을 공안탄압에 내몰고 있을 때 정권을 빙고있던 국민들은 살인강도들에게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 끝을 알 수 없는 '인천 북구청 세금착복사건'은 김영삼 정권의 개혁이 실패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더이상의 비이상적인 공안탄압은 중단되어야 한다. 공안탄압에 피해보는 것은 민족민주운동세력 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 모두이기 때문이다.

부질없는 공안탄압으로 애꿎은 민족민주 운동 세력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남북화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민생치안에 앞장서는 것이, 개혁을 추진시켜야 하는것이 국민의 정부로서 문민정부라 자칭하는 김영삼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김영삼 정부는 국민들의 원성소리를 주의깊게 듣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김 형 찬

〈수원캠퍼스 총학생회 정책위원장〉

◇공안탄압으로 피해보는건 결국 일반국민들이다.

"김영삼정권과 극우보수 세력의 합작품인 신공안정국의 탄압은 중단되어야…"

강단시론

김 수 곤

〈정경대교수 경영학〉

자동차에 산소세를…

추석명절의 최대 관심사가 성묘나 차례보다는 교통 지옥에 쏠리게 된 것 같다. 교통문화가 영점인 사회는 국제 정쟁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 "고약한" 자동차 때문에 우리 국민의 윤리관은 선진국은 고사하고 오히려 중진국에서 원시국가로 떨어진 것 같다.

자동차의 양면성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빠르게 그리고 신나게 그 편리함의 혜택을 누린 것이 자동차였다. 그러나 장난감 다루듯이 자동차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제일의 수치스러운 기록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로 인한 사상자의 뒷감당은 우리 모두의 부담이 되고 있다.

자동차는 잘 쓰면 문명의 이기이지만 잠못쓰면 살인무기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길을 건너보면 차가 내뿜는 매연을 마사면서 한정된 산소를 극단하기 위해 자동차와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기 조차 하다. 자동차 한대의 산소 소모량은 개인이 흡입하는 산소 소모량의 수십배는 될 것이다. 유한한 산소를 공짜라해서 그렇게도 난폭하게 소진해버려도 괜찮단 말인가? 휘발유 리터당 산소 소모량을 감안한다면 휘발유값을 내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산소세를 오히려 첨가해야 옳을 것 같다. 자동차에 관한한 우리 정부는 전근대적인 완전자유방임인 것 같다. 아경국가도 질서만은 정부가 책임지고 지켜건만 그것마저도 못하는 형편이다. 시내에 자동차들이 엉켜 있는 꼴을 보면 도대체 정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고 공포증까지 난 때가 많다.

운전자를 가장 화나게 하는 말은 "양보운전 합시다"라는 아나운서의 말이다. 왜냐하면 '양보운전'이란 스티커를 붙인 차가 오히려 얌체 운전을 하는 것을 자주 보기 때문이다. 잘 지켜지지도 않는 이타심에 호소해서 언제 질서를 바로 잡겠는가?

그러니 양보에 앞서 법과 규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제도하고 그것을 어긴 사람에게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양보와 용서에 기생하고자 하는 얌체 무리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야

큰 차를 탄 사람은 그런 사람답게 좀 여유있게 몰았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다. 여기에 뒤질세라 작은 차도 힘껏 달리고 끼어든다. 그런가 하면 오토바이 탄 사람은 더욱 난폭게 달리고 보도를 자기들의 전용차선으로 착각한다. 그러고보니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자전거를 빼놓고 줄러다니는 바퀴를 탄 사람들은 누구나 다소의 죄책감을 다 느낄 것이다. 걸어다니는 지하철 이용자들은 그렇지않겠지? 우선 지하철 이용자들의 참을성에 나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이타는 역에서 걷고 또 걸으면서도 불평하지 않는다. 공기가 나쁘다는데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비웃지상에서 본 지도이고 어떤 것은 지하에서 위로 향해 그린 지도이다. 지도는 북쪽을 지면의 상부에 놓는다는 기본약속조차 어긴 셈이다. 그러니 다른 지도를 볼 때마다 같은 역의 위치를 엉뚱한 자리에서 보게된다. 국철을 타면 국철노선만, 서울지하철은 그들의 노선만을 표시해 놓은 지도를 볼 때에는 두 공공기관간의 이기심경쟁이 극치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승객의 편의란 추호도 생각한 흔적이 없기 때문이다.

무감각한 양보의식

잘 지켜지지도 않는 경로석과 여성전용차량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착상인지가 궁금하다. 양보를 강요받는 시민의식은 오히려 기본질서까지도 잊어버린듯하다. 열차가 도착하면 내릴사람부터 내린 다음에 탈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 상식인데도 그것이 통하지 않으니 말이다.

그저 숫자가 많으면 적은 수의 몇사람을 용직일수 없도록 밀어 붙이기 일쑤다. 열차를 손이 닿을 정도로 앞에 놓고도 차에서 내린 군중들에 떠밀려서 타야할 차를 놓치는 사람들을 수없이 본다. 다같이 반성해야 겠다.

질서의식이 없는 교통문화는 자동차에 한하지 않았다. 적게는 오토바이와 보행자들까지 모두가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기만 하는데 이래서는 국제경쟁도 선진화도 다 불가능일 것이다. 국가존립의 대의가 복지이전에 기본질서 확립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Anam

*제품구입처는 아남전자 전국대리점 *고객상담실(통로버서비스) : 080-022-8572(시내외 겸용)

델타-M7
*초첨단 4Ai최첨단지혜기능(인공지능, 음량크기 자동기억, 음량-시/자동조절용, 전원입력시 자동기억)*최고급 슬라이드로딩데크/CDP*최대 8디스플레이 및 5모드 이퀄라이저로 메모리기능*다음향 칼라 *카드형리모콘*AM/FM시보기능 *메모 on/off 및 메모해제기능, Sleep예약기능 *마이크믹싱 및 에코기능 *최 160mm×높이175mm 초미니사이즈
₩448,000
New

거꾸로 보자!
X

거꾸로 보면 고정관념은 깨지기 마련이지!
예를들면, 오디오는 그래도 큰게 좋다든가,
오디오는 까만게 폼난다든가하는 말들.
거꾸로 보면 책상위에 올려놓을만큼 조그맣고
칼라도 다양한 마이크로 오디오도 있는데…
때때로 세상은 거꾸로 봐야 제대로 보인다.

in-X TECHNOLOGY
4Ai 최첨단 인공지능 - 버튼하나로 자동기능질환
동급최강 50와트 파워출력
최고급 슬라이드로딩데크/CDP채용
60채널 자동메모리튜너

in-X FASHION
신세대 감각의 다양한 칼라
EQ대형 8디스플레이 및 5모드 메모리 기능
마이크로사이즈의 깔끔한 디자인
2단 분리로 레이아웃도 자유

음악경향성 선발 아남델타기요제
*참가자격 : 대학 재학생, 전국대 출품
참가자는 본인 그룹은 6명이상으로 제한
*참가신청 : 신청서 교부 (주소전자 홈페이지 홈페이지 및 우편)
신청서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가능
(우) 135-09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24-12 아남빌딩 아남전자 마케팅부 영업지원팀 담당자 앞
접수마감 : 9월30일(금) 오후 5시 유효
선발방식 : 예비 심사 및 본선 (1차, 2차) 4회진행

마이크로 칼라콤포-아남 인.엑스